

||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 1. 설만한 물가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2. 2024 년 표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엡 4:12)
- 3.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4.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 5. 사순절(2 월 14-3 월 30 일):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6. 새벽 예배에 레위기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 7.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갈라디아서 5 장 24 절 (2024 년 3 월 성경 암송 구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9. 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 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http://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10 장 (통 34)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27. 사순절 (4)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405 / 찬 401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3 장 (통 348)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 22:11-21 (p.817)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God who is with me, deliver me from the suffering

*찬 송 Hymn	542 장 (통 340)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 말씀 노트 ||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와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시 22:3-5).

(시 22:10)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 22: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삼상 16:18)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삼상 18: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시 22: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 22: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시 22: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시 22:18)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 19: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 22:19)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 22:20)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시 22:21)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 || 목회와 삶 || 믿음의 길은 어떻게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나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일에 관하여 현재의 시선에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창 15:5)을 받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이나(창 16:1-11), 사라가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는 모습은(창 18:12)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 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출 3:8; 민 13:27).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포도 한 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 달린 가지를 막대기에 끼워 날랐습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10 명의 정탐꾼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튼튼한 요새처럼 되어져 있었고 매우 컸습니다(민 13:28). 또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으므로 정탐꾼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매뚜기와 같았습니다(민 13:33).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민 14:9)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들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치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우리들의 시선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아니라 10 명의 정탐꾼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하기 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에 우리들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